



철거가 진행중이던 건물이 붕괴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1인 건설사’에 맡긴 광주시민의 안전

학동참사 철거업체 ‘무늬만 건설사’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는 사실상 ‘1인’ 기업에게 안전을 맡기면서 빚어진 참사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2, 6, 7면>

13일 광주경찰청과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철거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시행한 ㈜백솔건설은 직원이 2~3명이 전부인 사실상 ‘무늬만 건설사’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수사 브리핑 이후 “(백솔건설은) 사실상 1인 건설사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백솔건설은 지난해 2월 세워진 회사로, 설립 한 달 뒤인 3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사업 면허’ (2020년)를 뒀다. ‘석면해체 제거업자 면허’ (2020년)도 그 해 11월 취득했다. 결국 백솔건설이 지난해 6월 학동 4구역 재개발 구역 내 ‘석면철거’를 맡은 ㈜다윈이엔씨로부터 석면철거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을 시기에는, 면허 취득 (11월) 전이었기 때문에 다른 건설사의 면허를 빌렸다는 결론이 나온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파악한 자격증을 갖춘 백솔건설 기술자도 2명 (기사 1명·기능사 1명) 뿐이다. 경찰이 주목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참사 당일인 지난 9일에도 백솔건설 대표인 A씨가 골짜기 기사로 직접 철거 작업 현장에 있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백솔건설 직원은 대표 A씨와 다른 직원 한 명 등 2~3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용직 건설노동자였다.

광주시 북구 문흥동 백솔건설 사무실 주변에서 만난 주민들도 “한 달에 한 번꼴로 사무실에 모습이 보이는데 직원은 여비서와 대표가 전부였다”고 말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일용직을 활용,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사업장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대기업의 하청과 재하청을 받는 업체들의 경우 낮은 수주가와 영세성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조차도 빠듯하다보니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 교육과 안전 설비에 투자할 여력을 갖춘 업체가 드문 실정이다. 감독 당국에 제출한 공사현장 안전계획을 포함한 해체계획서와 다른 형태로 공사가 진행된 것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내놓은 백솔건설의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액은 4억100만원이다. 시공능력평가액이란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 실적과 경영 수준, 기술력, 기업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사당 수주할 수 있는 금액을 보여주는 지표다. 백솔건설은 다른 지표로 측정할 수 없어 자부금만으로 매겼다. 지난해 수주한 사업도 2건 (6900여 만원)에 불과하다.

노동계 일각에서 이번 사고를 놓고 경험도, 기술력도 충분하지 못한 회사가 10억원이 넘는 사업을 맡으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는 셈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 하다. 경찰이 “미시” 건설사가 재개발 사업 철거 공사를 맡게 된 배경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재개발조합측과 계약을 체결한 현대산업개발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자신들이 맡은 공사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시공사가 모를 리 없지 않느냐는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경찰이 계약업체 간의 불법 행위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는 점에서 실체가 어떻게 밝혀질 지 관심이 쏠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준석 대표 첫날 공식행보는 ‘광주’

국민의힘, 헌정사상 첫 30대 대표 선출 ... 오늘 광주 붕괴사고 조문 정치권 ‘변화·혁신’ 화두로 ... 차기 대선·지방선거 큰 영향 미칠 듯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새 대표에 30대에 원외인 이준석 대표 (36세)가 선출되면서 정치권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헌정사에 집권 여당 또는 제1야당에서 30대가 ‘간판’으로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장 정치권에선 코로나 19 이후 세대교체와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을 근간으로 하는 ‘변화와 혁신’이 화두로 부상, 차기 대선의 향배는 물론 지방선거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기사 3면>

지난 11일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이 대표는 일반국민 여론조사와 당원투표 결과를 합쳐 9만3392표 (전체 대비 43.8%)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 나경원 후보 (7만9151표, 37.1%)와의 득표율 차이는 6.7%포인트다. 주호영 (2만9883표, 14.0%), 조경태 (5988표, 2.8%), 홍문표 (4721표, 2.2%) 후보가 3, 4, 5위를 기록했다.

이 대표는 반영 비율이 70%로 높아진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37.4%로 나 후보 (40.9%)에게 뒤졌지만 일반국민 여론조사의 압도적 승리

(58.8%)에 힘입어 당권을 차지했다. 이는 세대교체와 시대 변화 요구에 부응해야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보수 지지층의 전략적 투표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여성 후보가 대거 당선됐다. 호남 출신인 조수진 의원을 비롯해 배현진·김재원·정미경 최고위원 (득표순)이 지도부에 임명됐고 청년 최고위원은 31세인 김용태 후보가 당선됐다.

이 대표는 이날 수락연설에서 “변화를 통해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며 “우리의 지상과제는 대선에 승리하는 것이며 다양한 대선주자 및 그 지지자들이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체제가 현실화되면서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혁신과 변화, 미래 이슈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선점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국을 이끌어 갈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민생 경제 문제 등에서 속시원한 해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다 오는 11월까지 코로



이준석 대표

나 19 집권지역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론의 정치적 압박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경선 연기 문제로 뜨거운 감자다. 예비 경선일이 오는 21일이라는 점에서 이번 주 내에 대선 주자들 간의 통 큰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론의 내부 갈등 구조만 커질 수 있다.

지역 정치권에도 이준석 대표 바람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서진정책을 통해 호남 겨냥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혁신 보수주의의 정체성 변화까지 이뤄진다면 내년 대선에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불모지인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두 자릿수 이상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준석 바람은 여론의 변방에 머물고 있는 호남 정치권의 분방을 촉진하는 한편, 내년 지방선거에서 젊은 피 영입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한편, 이 대표와 신임 최고위원들은 14일 오전 10시 광주시 동구정에 마련된 학동 건물붕괴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분향할 예정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G7 정상들과 나란히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평한 백신 보급에 협력 확대”

G7 정상회의 참석 문 대통령 ... 한·영, 한·EU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3일 오전 (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의 공평한 보급에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과 존슨 총리는 영국 콘월에서 개최 중인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날 정상회담을 했다. 존슨 총리는 이번 G7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을 초청했다.

두 정상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서서 백신의 공평한 보급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코로나19를 비롯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백신의 신속한 개발 및 공평한 보급을 위해 연구개발 분야 등에서 한·영 양국의 협력 확대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유럽연합 (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만나 코로나19 대응 및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제는 방역을 넘어 백신 접종 확대가 중요하다. 개발도상국에 원활하고 공평하게 백신을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백신 개발에 대한 유럽의 선도적 능력과 한국의 우수한 생산 능력의 결합해 백신 생산 거점을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은 글로벌 백신 허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정상들은 한국이 ‘P4G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을 축하했고, 양측은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EU 정상들의 올해 하반기 방향을 초청했고, EU 정상들은 사의와 함께 방한 의지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촉촉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촘촘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 설화수 플렉스스피어 및 진국 배허진, 아모레 카운셀리움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렉스스피어 : 02-541-9270 • 고객센터 :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